

간헐,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발빠른 대응

확진자 치료병원 방문해 간호사들 격려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중단 대응방안 논의 시민 대상 1인 1마스크 쓰기 캠페인 펼쳐

대한간호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 1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감염증 전파를 방지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집단 발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집단폐렴의 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로 확인됐다. 2월 4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확진 환자는 16명이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치료하고 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를 편성해 대응해왔다.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를 가동했다.

정부는 2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우리 국민의 경우는 입국을 허용하되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WHO,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ies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다. 하지만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이동과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전염병이 발원지 국가를 넘어 다른 국가들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된다.

△확진자 치료병원 간호사들 격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국립중앙의료원과 명지병원을 1월 30일 방문해 해당 병동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신경림 회장은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간호사들이 최전선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경림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의료원장, 명지병원 이영준 이사장을 만나 현재 상황과 감염관리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시간호사회(회장 장성숙)는 인천의료원을 1월 30일 찾아가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인천시간호사회는 조승연 의료원장과 황선희 간호부장, 감염관리간호사 등을 만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과일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간호교육 관계자 긴급회의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교육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1월 31일 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인해 임상실습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미 병원으로부터 3월 실습 불가 통보를 받은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임지영 회장,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양경희 부회장,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 김희영 이사, 한국내선협회 정미순 이사 등이 참석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임상실습 상황을 파악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며 "재난상황에서의 간호교육 및 임상 현장 대응방안을 담은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1인 1마스크 쓰기 캠페인 = 대한간호협회 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1인 1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1월 30일 서울역 광장, 1월 3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진행했다.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과 마스크를 나눠주며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회에 이어 서울시간호사회가 2월 3일 영등포역에서, 부산시간호사회가 2월 4일 부산역에서 '1인 1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순차적으로 전국 시도간호사회에서 지역 사회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헐 등 보건약단체협의회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보건약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1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6개 보건약단체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6개 보건약단체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확진자 치료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서울역에서 1인 1마스크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과 마스크를 나눠줬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교육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정례 실무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 환자 신원확인 및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3개 시스템을 의료기관 등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료기관 자체 감염예방 교육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별진료소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이자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선별진료소 540곳의 명단(2월 3일 기준)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의료기관의 추가 설치 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간헐 선관위, 임원 후보 홍보물 배포 후보 프로필 간헐 홈페이지에서 열람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만숙)는 임원 후보들의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해 전국 대의원과 간헐 중앙회 이사,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에게 우편으로 2월 10일 보낼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이 제출한 콘텐츠를 검토한 후 브로슈어(1회 발송), 이메일(2회 발송), 문자 메시지(2회 발송) 등 선거 홍보물을 일괄 제작해 발송한다.

앞으로 2년(2020~2021년) 동안 대한간호협회를 이끌어 갈 제38대 회장 후보로는 신경림 현 대한간호협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신경림 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 제1부회장 후보로 박월희 현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제2부회장 후보로 김영경 현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을 지명했다.

선출직 이사 후보는 다음과 같다.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교 교수) △김일옥(삼육대 간호대학 교수) △박미영(건국대병원 진료지원부 수석)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손혜숙(현 대한간호협회 상근이사) △염혜아(가톨릭대 간호대학 부교수) △유재선(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윤원숙(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태화(연세대 간호대학 학장).

감사 후보는 다음과 같다. △박경숙(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탁영란(한양대 간호학부 학부장).

임원선거에서는 새 회장과 선출직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는 오는 2월 19일(수)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87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다.

회장단 후보 프로필 및 선거공약, 이사 및 감사 후보 프로필 및 출마 소견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개설된 선거관리위원회 전용창에서 볼 수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임원 후보 선거광고 안내

간호사신문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회장 후보의 선거공고를 이번 2월 6일자 신문 1면에 게재합니다. 광고문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광고비는 후보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실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곳이다.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6985개)은 2019년도에 평가가 완료됐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관리보장, 급여제공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019년 12월 12일부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 한층 의무 평가가 강화됐다.

평가결과는 2021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한다. 이진숙 기자 jslce@

도전과 혁신으로

“간호시대(The era of Nursing)”를 열겠습니다!



제1부회장 후보 권월희, 회장 후보 신경림, 제2부회장 후보 김영경

1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간호 관련 법·제도 혁신

- 1 대한민국 보건의료 개혁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조선)법 제정
- 2 체계적인 간호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팀의 정규부서 전환
- 3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의 간호모형 개발 및 제도 개선

2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비전 및 조직 혁신

- 1 대한간호협회 회원 신축 및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협회 100년사 편찬
- 2 대한간호협회 100년 설계를 위한 새로운 장기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 3 대한간호협회 회원과 대국민을 중심으로 조직, 의사결정체계 및 홍보 혁신

3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간호현장 혁신

- 1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18,320의 확대 개편 추진
- 2 간호사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및 간호수가 체계 개편
- 3 노동시간 및 법정간호인력기준, 간호조직문화 개선으로 간호현장 혁신

4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간호교육 혁신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대비 및 임상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혁신
- 2 다양한 간호현장의 특성과 회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교육체계 혁신
- 3 신규간호사의 임상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체계 혁신

5 간호시대 개막을 위한 국제사업 혁신

- 1 WHO 지정 2020 “세계간호사의 해”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기념사업 추진
- 2 ICN, WHO, UN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확대
- 3 Nursing Now(보편적 건강보장 캠페인) 참여 및 마리안느&미가렛 간호사 노벨평화상 추천 지원

제38대 대한간호협회 회장단 후보 기호 1번 신경림·박월희·김영경